

주요국의 스타트업 육성정책과 한국의 과제

목 차

요 약

I. 왜 지금 스타트업 인가? 1

1. 글로벌 스타트업 현황
2. 글로벌 스타트업 확산의 배경

II. 스타트업 육성 주체와 특징 6

III. 주요국의 스타트업 육성정책 8

1. 미국: Startup America를 통한 혁신기업 육성
2. 영국: 스타트업의 클러스터와 투자집중
3. 이스라엘: 글로벌 지향의 기술기반 스타트업 육성
4. 한국: 정부주도의 다양한 보육제도 도입

IV. 한국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과제 24

요약

- (글로벌 스타트업 현황) 주요국에서 2010년대 이후 스타트업 창업활동 증가
 - (현황) GEM의 '초기단계 기업 활동지수'는 주요국에서 증가
 -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성공사례가 부각되면서 신흥국에서 창업활동 활발
- (스타트업 확산의 배경) 각국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정책 확산과 창업여건 개선으로 IT기술기반의 청년층 창업 확대
 - (청년 창업확산) 주요국에서의 높은 청년실업률로 20-30대 청년층 창업확대
 - * GEM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5-34세의 청년층 창업이 가장 높은 비중차지
 - (IT·모바일 산업발전) 비교적 창업이 용이한 기술발전과 활용증가
 - (창업환경 개선) 신생스타트업의 성장 생태계 개선
 - 주요국 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창업자금 조달비용 감소 및 벤처투자기금 활성화
- (주요국 스타트업 육성정책)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과 민간 엑셀러레이터의 보완적인 구조로 스타트업 창업환경 구성
 - (미국) Startup America를 통한 정부와 민간정책 조화
 - 자금 접근성을 강화한 정부 정책과 민간 기업주도 보육프로그램
 -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조성 and 선택적 육성
 - Tech City를 기반으로 기술기반 스타트업 육성과 집중육성
 - (이스라엘) 글로벌 지향 하이테크 기반 스타트업 발전
 - Yozma 프로그램을 모태로 벤처캐피탈 자금 유입 활성화
 - (한국) 정부의 포괄적인 스타트업 육성정책 제시와 민간 엑셀러레이터 태동
-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정부의 정책방향과 의지는 긍정적이거나 세부적인 육성 시스템은 정교화 할 필요
 - (평가) 스타트업 발전 방향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 정책제시와 글로벌화에 대한 추진방안은 마련되었으나 정보 산재 및 시스템화 미흡
 - (과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창업과 성장을 위한 효율적 시스템 구축

I 왜 지금 스타트업인가?

1. 글로벌 스타트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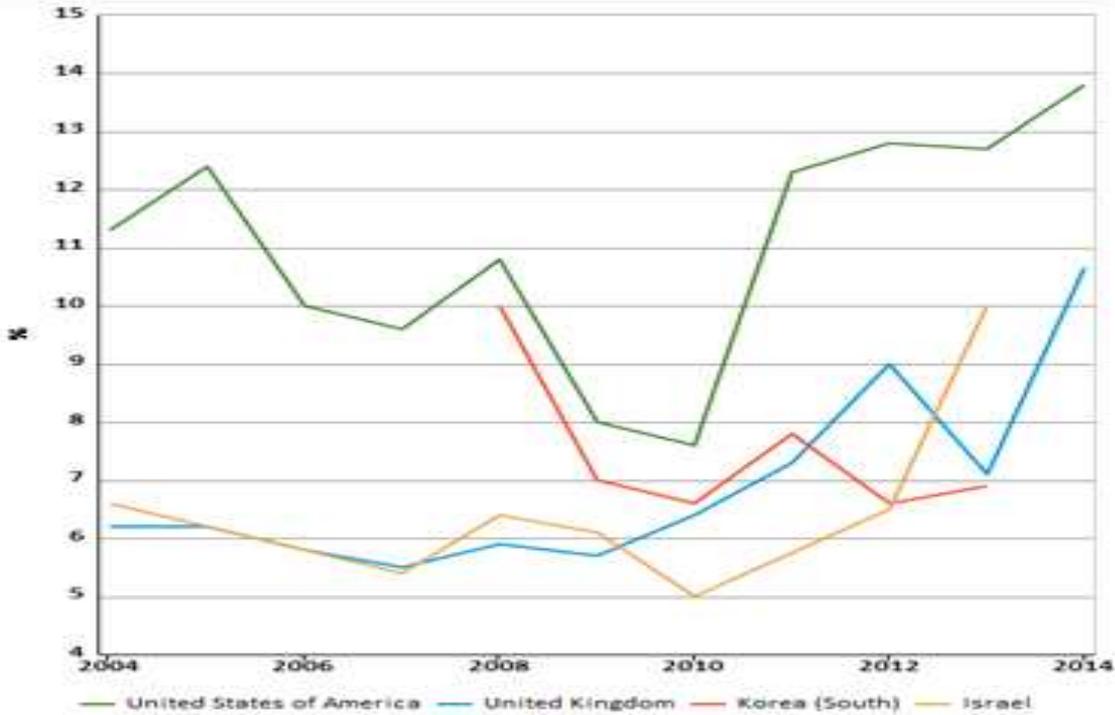
□ (정의) '스타트업(Startup)' 의 정의

- '스타트업(Startup)' 또는 '스타트업 기업(Startup company)'이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기업'으로 정의(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 1990년대 말 미국의 IT버블 과정에서 생겨난 기술기반의 벤처기업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신생기업의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
- 'The Lean Startup'의 저자 Eric Ries는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해석
 -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고객에게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조직
 - * 성공이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 혁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고객이 될 정도의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

□ (글로벌 스타트업 현황) 주요국에서 초기단계 기업 활동지수가 확대되는 등 스타트업 창업활동 증가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의 '초기단계 기업 활동지수(TEA: 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는 주요국에서 증가추세
 - * 18~64세의 경제활동인구 중, 창업한 기간이 짧거나 창업단계에 있는 인구 비중
 - 미국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7.6%에 불과했으나 2011년 12.3%, 2013년 12.7%에 이어, 2014년에는 13.8% 기록
 - 영국의 지수는 2007년 5.4%를 기록한 이후, 2010년 6.4%, 2012년 9.0%로 증가했으며 2014년 10.6%로 크게 증가
 - 이스라엘의 창업활동도 증가추세이며 한국의 경우 2012년 6.6%로 저점을 기록한 뒤 2013년부터 상승추세
 - * 이외에도 중국, 칠레 등의 신흥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 2012~2013년을 기점으로 스타트업 창업이 두드러진 경향 대두

<그림 1> 주요국의 초기단계 기업 활동지수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5

- 창업활동은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가운데 신흥국의 창업활동이 선진국보다 활발하게 나타남.
 - 대륙별 평균 초기단계 기업 활동지수(TEA 2013)는 사하라 이하 아프리카 지역이 27%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라틴 아메리카 19%, 아시아·태평양 12%로, 북아메리카 11%, 유럽연합 8% 등의 선진국보다 높은 창업성향
 -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TEA 저하

-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성과와 성공사례가 부각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스타트업 창업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
 - 경영컨설팅 기업인 Ernst & Young의 평가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6백 개 스타트업의 평균 총자산이익률(ROA)은 16.8%로, S&P 500, Russel 2000에 포함되는 미국기업의 7.1%, 1.6% 보다 매우 높은 수준(2000~2012년 기준)
 - 주요 신흥국에서는 중산층의 성장과 함께 스타트업 창업 열풍
 - * 중국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스타트업 수가 2배로 증가한 약 169만 개에 달함.

2. 글로벌 스타트업 확산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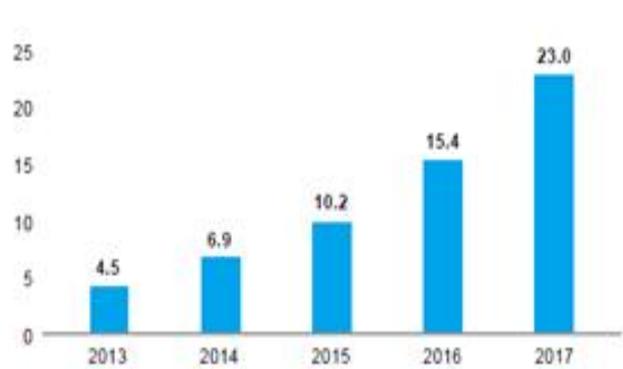
- (청년창업 확산) 높은 청년실업률에 대한 대안으로 20-30대 청년층의 인터넷·모바일 기술 기반 창업 확대
 - (청년실업의 증가) 청년층의 실업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창업이 취업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
 - 국제노동기구(ILO)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청년층 인구의 약 13%가 실업상태에 놓여있음.
 - * 2010년 이후 청년층의 실업률은 ('11) 12.3% → ('12) 12.4% → ('13) 12.5% 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 유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장기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
 -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의 실업률은 '15년 12월 기준 6.7%에 달해 최근 5년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 특히, 최근의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인해 브라질 등 중남미국가의 경기여건 악화가 영향
 - (실업의 대안으로서 창업)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증가와 창업확대가 전반적인 스타트업 확산의 배경
 - 취업의 대안으로서 창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확산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의 '2013년 글로벌 리포트'에 따르면, 전체 창업자가운데 25세 이상 34세 미만의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특히 중국에서는 57%를 차지
- (인터넷·모바일기반 연관 산업발전) 상대적으로 창업이 용이한 인터넷·모바일 기반 기술의 발전과 활용 확대
 - (ICT 발전)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정보기술(ICT)의 발전으로 신기술 분야의 활용성 증가
 - ICT 기술발전과 함께 ICT를 기반으로 한 연계산업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창업환경이 개선
 - * 2013년 기준 정보기술 발전지표(ICT development index)는 전년 대비 0.2 pts 상승하여 기술발전이 지속

<그림 2> ICT development index



자료: ITU 2014

<그림 3> 모바일 헬스케어산업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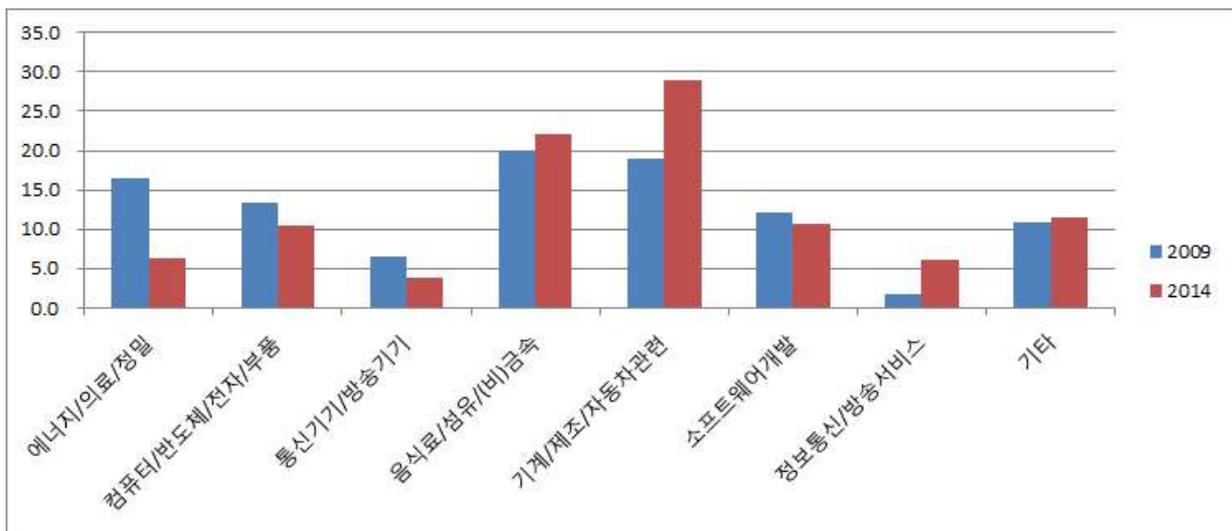


주: 십억 달러

자료: ITU 2014

- (ICT 관련 스타트업)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스타트업의 수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 벤처기업의 창업분야는 정보통신/방송서비스 분야에서 크게 증가
 - 한국에서 해당 분야의 창업기업은 2009년 1.7%에서 2014년 6.2%로 확대

<그림 4> 벤처 스타트업의 진출 산업분야: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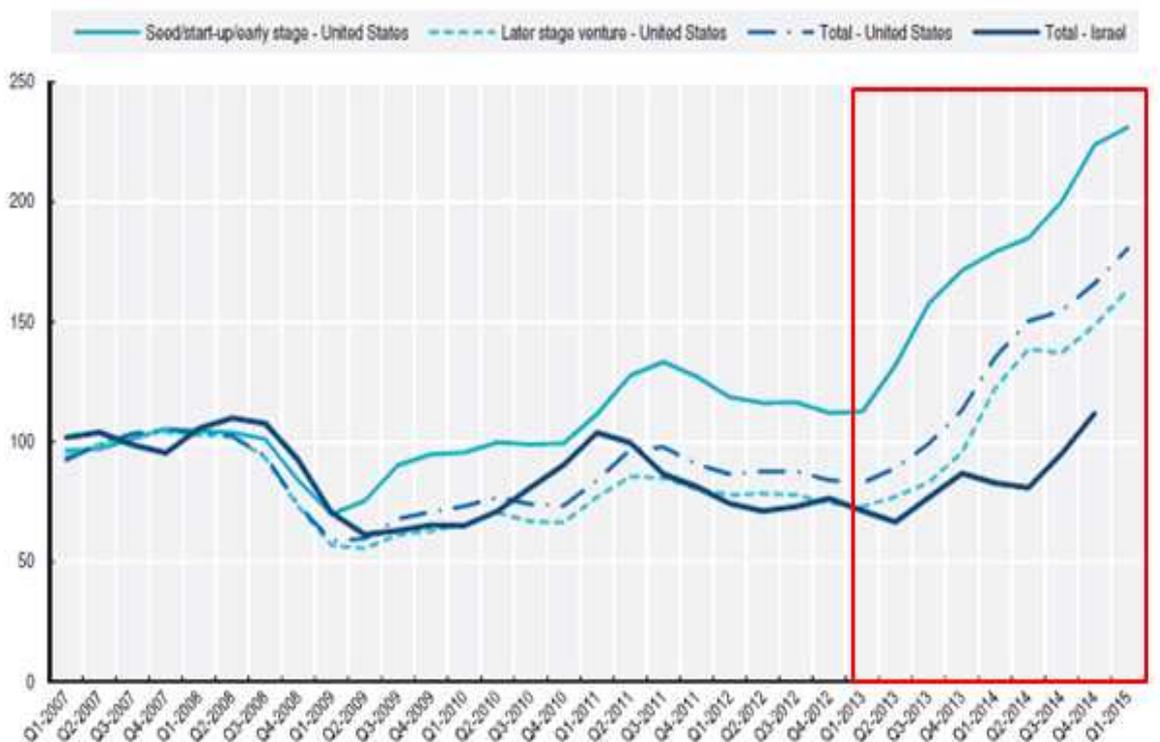
주: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2009, 2014

- (창업환경 개선) 정부 차원의 창업보육정책 확대 및 자금조달의 경로의 확대에 창업환경이 개선

- (주요국 정부 창업지원)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정부차원의 스타트업 육성정책 제시
 - 글로벌 경기의 불안정성이 대두되면서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창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가 중요과제
 - 미국은 2011년부터 'Startup America Initiative' 정책을 통해 스타트업 육성 노력, 영국은 2010년부터 런던에 Tech City를 조성하여 기술기반 스타트업 클러스터화 등 추진
 - (스타트업 자금 지원 확대) 글로벌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창업자금 조달비용 감소 및 다양한 자금지원 증가
 - 미국 및 유럽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어 자금 조달비용 감소
 - 각국 정부·민간의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 * 인도의 벤처투자자금은 2006년부터 2012년 까지 약 6억 달러에서 14억 달러로 크게 증가

<그림 5> 미국과 이스라엘의 벤처투자자금 증가



주: 2007년 100을 기준으로 증가추이

자료: OECD,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5

II 스타트업 육성 주체와 특징

- (창업정책의 조정자로서 정부) 정부는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정책조성을 통해 스타트업의 창업활동 촉진 가능
 - (정부의 창업활동 촉진) 정부는 창업지원 정책을 통해 스타트업의 창업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 수행

<표 1>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

긍정 요인	부정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절차 간소화 - 지식·정보·기술 접근성 - 저금리의 창업자금 이용 - 창업가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이자율 - 높은 인건비 - 정부정책의 비일관성 - 불안정한 재정 지원정책

자료: Makiela, Z. (2008). Przedsiębiorczosc regionalna. Warszawa: Difin.에서 저자 편집

- (긍정요인) 행정절차·사업자금 조달·기업의 문제해결 등 창업환경 개선을 통한 스타트업 성장 촉진 정책으로 시장의 불완전성 보완
 - 창업가가 초기에 겪는 문제점중 하나는 사업자금 조달이며 정부는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및 저금리 자금 대출로 재무적 문제 보완
 - *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은 사업초기 3~4년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일명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경험하며 이 시기에 많은 스타트업이 도산
 - 스타트업은 창업 초기에 유사한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마련을 통한 다양한 정보접근성 확대는 스타트업 생존에 긍정 요인으로 작용
 - 창업관련 행정절차 간소화는 기업이 불필요한 절차에 자원을 소비하지 않고 핵심역량에 집중하도록 지원
- (부정요인) 비효율적인 정부정책은 스타트업 발전 저해
 -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 효과적인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엑셀러레이터, Accelerator) 창업으로 성공한 기업인이 신생 스타트업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과 멘토링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활동 또는 그 기반이 되는 수행기관

- (주요 기능) 스타트업 초기 창업자를 발굴하여 자금지원, 교육, 멘토링 등의 과정을 통해 육성
 - 엑셀러레이터는 인큐베이터의 일종으로 인큐베이터에 비해 보육기간은 짧으나 보다 전문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이 차이
 -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를 경쟁방식을 통해 선발
 - 스타트업에 지분투자 방식으로 자금 제공
 - 선발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단기간(3~6개월) 창업교육 및 멘토링

<표 2>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 비교

구분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보육기간	장기	단기
초기투자	없음	소액 지분투자
주요 프로그램	경영지원 서비스	전문적 초기 육성 프로그램
지원 단위	개별 지원	기수별 집단지원

자료: KT경제경영연구소(2013), 국내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현황과 시사점

- (주요 특징) 엑셀러레이터는 민간 주체로서 기업성장을 위해 정부 영역에서 지원하기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
 - 정부가 제공하기 어려운 창업가의 멘토링 등으로 스타트업 애로사항 해소
 - 스타트업 성장에 따라 지분투자를 통해 투자금 회수 및 이익 기대
 - 창업이 확산되면서 민간 차원에서의 전문성과 창업기반 제공 필요성 대두
- * 2000년대 중반이후 전 세계적으로 민간 엑셀러레이터의 활동 활발

III

주요국의 스타트업 육성정책

1. 미국: Startup America를 통한 혁신기업 육성

□ (스타트업 장려정책) 정부는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여 혁신적인 창업기업과 신산업이 창출되도록 스타트업 진흥 정책제시

- (Startup America Initiative)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월 국정연설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시
 - Startup America Initiative의 핵심 목표는 경제성장, 혁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창업을 촉진하는 것임.
 - * 기업가 정신을 미국의 핵심가치와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고양시켜 기업 창업 환경조성
- (주요 내용)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자금접근성과 재무부담 경감 목적
 -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임팩트투자펀드 (Impact Investment Fund)'와 '초기단계투자펀드(Early-Stage Innovation Fund)'를 조성하여 향후 5년간 각각 10억 달러씩 투자
 - * 임팩트 투자펀드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기반한 기업 또는 클린에너지와 같이 유망한 분야의 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초기단계투자펀드는 스타트업이 초기 자금부족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금 제공 목적
 - 재무부는 개정된 '신시장 세액공제(New Markets Tax Credit)'를 통해 저소득 지역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의 재투자 규정 간소화
- 스타트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멘토링, 민간 협력사업 확대
 - 중소기업청, 에너지부 및 'ARPA-E(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는 4개의 민간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를 통해 1백 개의 클린에너지 스타트업에 멘토링 제공
 - 기업 경영자, 벤처캐피털리스트, 엔젤 투자자, 기업, 대학, 재단 등이 포함된 비영리 재단(SUAP: Startup America Partnership)을 조직하여 기업가정신 교육, 아이디어 상업화 등 창업과정 지원

- TechStars는 전국 15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가와 투자자들이 젊은 창업가에게 멘토링을 하도록 추진

-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금융시장에서 신생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2012년 4월 승인
 - 기업의 자금조달 방안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 목표

- **(주요 내용)** 스타트업 기업이 민간시장에서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으로 자금을 쉽게 조달하고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업은 다양한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연간 1백만 달러까지 투자자금 모집가능
 - * 투자자 개인의 연간소득이 1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의 5% 또는 2천 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연간 소득의 10%까지 투자 가능
 - 주주의 수가 2천명 이하인 기업은 기업공개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

□ **(민간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정부의 Startup America 정책에 조응하는 민간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상존**

- **(Startup America Partnership)** 정부의 Startup America Initiative 정책 구현을 위한 민간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 미국정부의 정책구현을 위한 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민간 대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창업보육 프로그램의 형태

- **(목적)** 스타트업을 위한 장기적인 성장환경 조성
 - **교육:** 고등학교, 지역 전문대학교, 대학교 등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기업가 정신 함양교육 프로그램 확대
 - **상업화:** 지역의 창업환경 시스템, 교수진 참여, 기술인증 획득 절차 간소화 등의 정책융합을 통해 대학의 원천 연구기술이 시장에 쉽게 진입 가능하도록 지원
 - **창업촉진:** 다수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멘토들이 성공적인 기업가정신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많은 도시와

대학에 전파

- **(주요 내용)** 주요 미국 기업들이 자금 지원 및 멘토링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총 12억 달러의 자금 모집 및 약 50개의 기업이 펀드 자금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제공
 - Intel은 스타트업 기업에게 2억 달러의 자금 지원 약속
 - IBM은 미국 내의 스타트업 창업 기업에 약 1억 5천만 달러를 지원
 - Facebook은 매월 Startup Days를 개최하여 창업기업인들이 기업가 및 전문가들과의 만남으로 기업운영과 관련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마련
 - 미국 전역의 각 도시 및 지역별 창업가들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운영에 대한 의견 및 정보교환
- **(NFTE: Network for Teaching Entrepreneurship)** NFTE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으로 젊은 창업가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신규 프로그램 도입
 - 청소년들에 대한 창업가 정신 고취와 교육이 주요 목적
- **(주요 내용)** 타 기관 및 기업과 공동으로 창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도입
 - Pearson Foundation과 공동으로 기업가 정신에 관심 있는 모든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Digital Teacher Network 구축
 - Google과 공동으로 제품의 디자인과 상업화 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 기술 및 정보 활용 교육
- **(TechStars Network)** TechStars는 뉴욕, 보스톤, 시애틀 등지에서 운영 중인 멘토링 중심의 창업 엑셀러레이터로서 창업가와 멘토를 연결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
- **(주요 내용)** 사업가와 창업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연결에 중점
 - 2015년까지 2만 5천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약 5천명의 경험 있는 사업가들과 투자자들이 약 6천명의 젊은 창업가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고 사업지원

□ (미국 스타트업 정책의 의미) Startup America를 중심으로 정부주도의 기업육성 정책 지속과 민간부문의 융합

-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조화) 미국의 스타트업 육성정책은 공공부문의 정책 선도와 민간부문의 참여가 유기적으로 결합
 -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민간이 강점을 가진 부문이 결합된 민관합동 경제프로젝트의 성격
 - * 다만, 정부와 민간의 영역이 다소 중첩되는 것은 개선 필요

<표 3> Startup America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주요 정책과 의미

구분	정부 부문	민간 부문
주요정책과 의미	1. 창업자금 접근성 확대: 펀드 조성으로 재무부담 경감 2. 창업가와 멘토 연계: 기업생존을 위한 경험 전수 3. 정부 역할 유지: 정부 주도의 산업육성 지속 4. 혁신 가속화: 창의력 있는 인재의 지속 발굴	1. 장기적인 창업환경 조성: 기업의 장기적 육성기반 마련 2. 차세대 창업가 육성: 창업소외계층 양성화 3. 멘토와 창업가 연결: 기업생존을 위한 경험 전수 4. 기업과 창업가 연결: 기업생존을 위한 경험 전수 5. 혁신 가속화: 지역중심 혁신 촉진

자료: FACT SHEET: WHITE HOUSE LAUNCHES “STARTUP AMERICA” INITIATIVE, Public and Private Partners Invest in American Entrepreneurs를 기반으로 저자 정리

- (정부주도 육성정책) 정부가 기업육성에 적극적인 역할 수행
 - 경제시스템에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일반적인 미국의 정책과 상반되는 정부주도의 기업육성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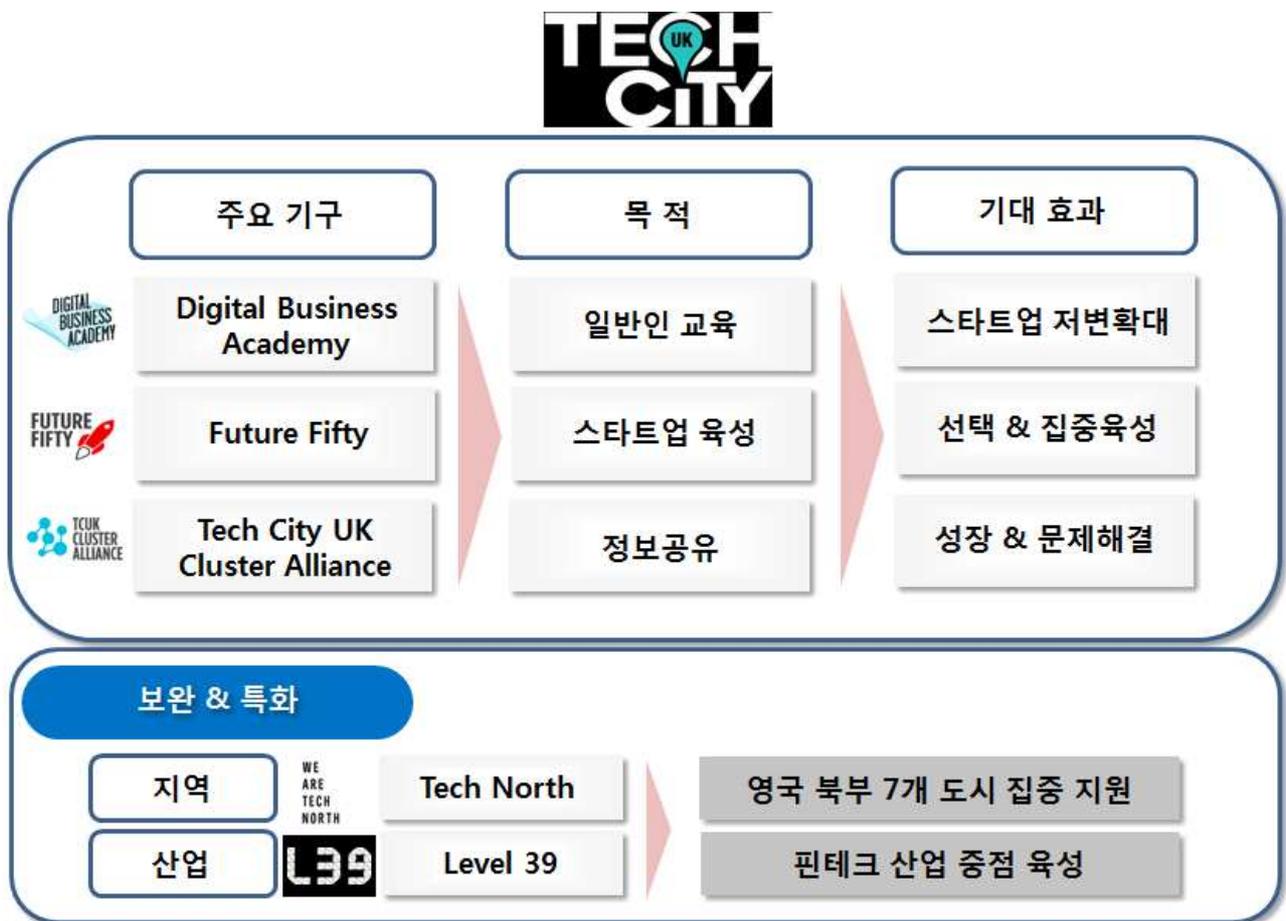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지속적 경제성장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혁신전략(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의 일환
 - * 2011년 2월 발표되었으며 향후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 제시
- (기업의 적극적 참여) 민간 기업이 자금투자와 동시에 성공사례(best practice)를 스타트업과 공유하는 등 스타트업 육성에 동참
 - 기술기반의 인터넷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스타트업 육성에 자금을 지원하고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
- (스타트업 문제해결과 네트워크) 기업창업 초기의 어려움 해결과 기업간 네트워크를 중요 과제로 인식
 - 기업이 창업 초기에 겪는 어려움을 멘토링을 통해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창업가와의 멘토링 구축을 중요 과제로 정립
 - 창업지원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구축하여 각 지역에서 창업관련 정보를 얻고 다른 지역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2. 영국: 스타트업의 클러스터와 투자 집중

-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정책) 런던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및 창업지원을 통한 육성정책 추진
- (초기 기업투자법) 2012년 4월 성장의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초기 기업투자법(SEIS: 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도입
 -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연간 투자금액 10만 파운드 한도에서 소득세 50%감면
- (테크시티와 기업클러스터) 기술기반의 창업기업 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해 2010년 런던에 Tech City 조성
 - 조성 초기에는 약 1백여 개 미만의 기업만이 입주하였으나 최근 입주 기업 수는 약 5천여 개로 증가
 - 영국 핀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다양한 혁신기술에 기반한 스타트업이 입주

- (테크시티 중심의 스타트업 육성) 테크시티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Future Fifty 프로그램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50개의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집중 육성하는 제도
 - Tech City UK Cluster Alliance는 영국 내에 산재한 16개 산업 클러스터간의 교류를 통해 성공사례와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 Digital Business Academy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의 전문가들이 기업 창업과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창업과정 온라인 강의
- * 영국 북부지역의 7개 도시에서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Tech North 프로그램도 운영

<그림 6> Tech City 기반의 영국 스타트업 지원 구조



자료: 저자 작성

- **(Future Fifty)** 테크시티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지원정책으로 성장가능성이 증명된 대표적인 50개 스타트업을 중점 육성
 - 선정된 기업에게는 ▲낮은 법인세율 적용 등 세금 감면 ▲신기술 연구지원 ▲공장건설비용 등에 세금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
- **(L39)** 런던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금융 산업과 이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산업이 시너지를 내어 성장할 수 있도록 특화된 스타트업 클러스터
 - 2013년 3월 런던의 금융 중심지인 '카나리 워프(Canary Warf)'에 오픈하였으며 핀테크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중점
 - 스타트업을 위한 중·단기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이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민간 지원기관) 다양한 엑셀러레이터 및 스타트업 육성기관 활동**

- **(스타트업 팩토리)**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NESTA(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Arts) 주도의 프로그램으로 활발한 스타트업 지원활동
 - 미국에서 시작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의 개념을 차용하여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육성정책추진
 - * 주로 단기간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자금 제공으로 스타트업 지원
- **(주요 프로그램)** 주요 스타트업의 기능과 목적에 따른 다양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상존
 - 주로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설립된 프로그램으로 보육 기간은 최소 10주에서 최대 1년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 전역에 산재
 - 각 프로그램 마다 스타트업의 기능에 특화된 경우가 있는데 The Difference Engine 프로그램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특화

<표 4> 영국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명칭	설립 연도	기간	투자 금액	취득 지분율
Seedcamp	2007	1년	50,000 유로	8-10%
Springboard	2009	13주	5,000 파운드	6%
Oxygen Accelerator	2011	13주	5,000 파운드	6% 이상
The Difference Engine	2009	13주	5,000 파운드	6%
Betafoundry	2011	10주	5,000 파운드	5-10%
Ignite 100	2011	13주	100,000 파운드	8%

자료: Paul Miller and Kirsten Bound, "The Startup Factories: The rise of accelerator programmes to support new technology ventures," *NESTA Discussion paper*, June, 2011.

□ (영국 스타트업 정책의 특징)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통한 정책 집행의 효율화 추구 및 성장가능 기업 집중육성

- (클러스터 정책의 장점) 클러스터 정책은 관련기업들의 지리적 집중화를 통해 상호 상승작용 및 시너지 효과 기대
 - 비슷한 유형의 연관 산업(related and support industries)의 존재는 상호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생산요소들을 제공하게 하고, 정보와 기술의 교환을 용이하도록 작용
 - 이를 통해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등 궁극적으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
- (포괄적 육성정책) 스타트업의 저변 확대와 집중 육성 및 성장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추진
 - 테크시티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업의 창업, 사업화, 육성 등의 과정을 이해하기 쉬운 온라인 강좌를 통해 교육

- 성장가능성이 높은 주요 선별 기업을 집중육성하고 창업자간의 정보공유와 문제해결을 위한 조직 구성
- 스타트업 성장이 미진한 지역과 중요 산업에 대해 별도의 정책을 바탕으로 육성정책 추진
- (정부정책과 민간 프로그램의 조화) 정부주도의 산업육성 정책과 민간 프로그램이 상호 조화롭게 운영
 - 정부는 잠재 스타트업 시장형성과 검증된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민간 엑셀러레이터는 지원원칙에 적합한 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

3. 이스라엘: 글로벌 지향의 기술기반 스타트업 육성

- (스타트업 육성배경) 경제성장에 불리한 환경적 여건을 극복하고 과학기술발전 및 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 도모
 - (이스라엘의 대외환경) 적은 인구와 협소한 영토 및 정치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어 경제발전이 어려움.
 - 인구수가 약 8백만 명에 지나지 않아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려운 불리한 환경 및 한국의 약 1/5에 불과한 협소하고 척박한 영토
 - * 인구가 적은 국가는 내수시장이 협소하여 자국 시장수요를 기반으로 한 경쟁력 있는 산업의 발전과 대기업의 육성에 난항
 - 지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중동국가들과 인접
 - (스타트업 성장환경) 정부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정책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한 IT 중심의 과학기술 개발로 경제발전 추진
 - 기술기반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적합한 기업환경제공으로 우호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 특히, 최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 기업의 기술 흡수, 해외직접투자 및 기술이전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짐.

<표 5> 이스라엘의 기술부문 글로벌 경쟁력 지수

항목	순위 (144개국 중)
최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 여부	10
기업의 기술 흡수	5
해외직접투자(FDI) 및 기술이전	11
개인의 인터넷 사용률	37
브로드밴드 인터넷 가입률	24
국제인터넷 광대역 사용	29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률	37

자료: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정책) 산업자원노동부 산하 수석과학관실(OSC, Office of Chief Scientist)에서 기술관련 스타트업 육성정책 운영
 - (기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기술개발 지원에 초점을 둔 지원 프로그램으로 사업초기 단계 기술기업의 R&D, 제품 상용화,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지원
 - 연간 총 예산 약 3천만 달러로 운영되며 개별 기업의 기술개발 총액의 85%를 2년간 30~50만 달러 한도로 지원
 - 2004~2014년 기간 동안 약 7백 개의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 (트누파 프로그램) 창업 이전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이 창업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
 - 사업화 제품의 경제성 평가, 특허출원, 프로토타입 제작, 투자자 모집 등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지원
 - 개별 프로젝트 당 5만 달러 한도로 사업비의 85%까지 지원
 - (헤즈넥 프로그램) 창업 이전 단계인 트누파 프로그램 이후의 본격적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 정부의 기업 지원금은 출자 형태로 해당기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형태로 투자되며 개인투자자도 참여가능
- 창업 6개월 미만으로 25만 달러 이하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지원금은 개별 기업 당 1백만 달러 미만

□ (요즈마 펀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벤처캐피탈 투자 펀드로 초기에는 정부가 투자한 국영펀드의 형태에서 시작하여 민간투자 펀드로 전환

- (투자구조) 1993년 정부가 1억 달러의 재원을 직접 출자하여 직·간접투자를 혼용한 요즈마 프로그램 운용
 - 이 중 8천만 달러를 10개의 민간 벤처캐피탈에 최대 40%까지 지분투자
 - * 민간 벤처캐피탈에는 반드시 1개의 외국계 기관 참여 필수
 - 2천만 달러는 수석과학관실에서 ‘요즈마 벤처펀드(Yozma Venture Fund)’로 직접 운용

<표 6> 요즈마 펀드의 구성

구분	명칭	설립연도	자본금	외국계투자자
간접 운용	Eurofund	1994	USD 20mil.	Daimler-Benz, DEG(독일)
	Gemini	1993	USD 36mil.	Advent(미국)
	Inventech	1993	USD 20mil.	Van Leer Group(네덜란드)
	JVP	1993	USD 20mil.	Oxton(미국)
	Medica	1995	USD 15mil.	MVP(미국)
	Nitzanim	1994	USD 20mil.	AVX, Kyocera(일본)
	Polaris	1993	USD 20mil.	CMS(미국)
	Star	1993	USD 20mil.	TVM Siemens(독일)
	Vertex	1996	USD 39mil.	Vertex Int., Singapore tech (미국, 싱가포르)
	Walden	1993	USD 33mil.	Walden International(미국)
직접 운용	Yozma (venture fund)	1993	USD 20mil.	

자료: Gil Avnimelech, "VC policy: Yozma program 15-years perspective," Summer conference on Copenhagen Business School, June, 2009.

- (민영화) 정부는 개별펀드 별로 1998년부터 민영화를 시작하여 2004년까지 지분 매각 등을 통해 모든 펀드를 민영화
 - 간접 운용펀드에서 정부가 가진 지분은 매각이나 콜옵션 등을 통해 모두 민간에게 2004년까지 모두 민영화 완료
 - 직접 운용펀드인 요즈마 벤처펀드는 1998년에 'Ofer Brothers'에 매각되면서 '요즈마 그룹(Yozma Group)'으로 명칭 변경
 - (성과) 요즈마 펀드는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투자 시장을 선도하면서 민간 투자자금 유입을 통해 이스라엘 스타트업의 성장에 큰 역할
 - 요즈마 펀드에 의한 벤처자금 조성액은 펀드 구성 초기의 약 2억 6천만 달러 수준에서 2008년까지 약 60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
 - 특히, 벤처캐피탈 시장의 확대로 많은 수혜를 입은 업종은 생명과학 분야로 이스라엘 내의 해당 기업 수는 2004년 467개에서 2014년 1,380개로 큰 폭으로 증가
- * 그 중에서도 의료장비, 바이오·의약 분야의 스타트업이 대부분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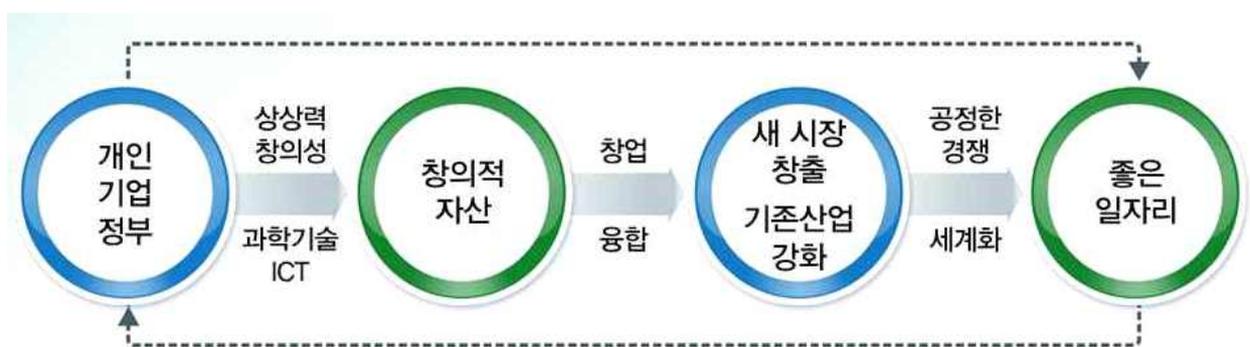
□ (이스라엘 스타트업 정책의 특징) 글로벌 지향의 하이테크 기반 스타트업 육성

- (과학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 자국의 대내외 환경과 자원을 활용한 하이테크 기술 기반의 스타업을 집중 육성
 - 1990년대 초반 소비에트의 붕괴로 많은 유대계 기술 인력이 이스라엘로 유입되자 이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스타트업 기반 조성
 -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바이오, 의약 등의 생명과학과 ICT 분야 등의 기술 부문에 집중되고 있어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높음.
- (해외진출 지향) 국내 시장의 협소함을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스타트업의 선별 초기부터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평가
 - 이스라엘은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의 주요 선진국과 '양자간 펀드(Bi-National Fund)'를 구성하여 대외 네트워크 확대 및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4. 한국: 정부주도의 다양한 보육제도 도입

-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정책)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기반으로 창조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창의성에 중점을 둔 선도형 경제 추진 목적
- (창조경제 정책과 창업활성화)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 융자풀(pool)을 줄이고 투자풀(pool)을 늘려 창업기업이 쉽게 투자받을 수 있고, 국민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손쉽게 창업할 수 있으며 제도전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엔젤투자 활성화, 클라우드 펀딩 제도화, 미래창조펀드(5,000억원) 조성 등으로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 → 투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창업 플랫폼 다양화, 멘토링 강화, 제도전도 환경개선 등을 통해 벤처·창업 생태계 인프라 확충
 - 정부는 창의적 아이디어로부터 시장성이 큰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을 마련하고, R&D와 표준, 특허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확산·중개시스템 구축
 - 특허 등 지식재산(IP)의 유형별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금융지원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 창출
 - 창의적 자산이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창업으로 연결되거나 기존제품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들어내고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그림 7> 창조경제 생태계



자료: 정부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3.6), 창조경제 실현계획: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

- **(글로벌 창업활성화 계획)** ‘내수시장 공략 후 해외진출’의 단계적인 글로벌화 전략과 병행하여 창업 초기부터 세계시장을 지향하는 ‘Born Global’ 전략 지원
 - 협소한 내수시장,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등으로 내수시장만으로는 벤처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근본적인 한계
 -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아이디어·기술을 보유한 유망 ‘Born Global’ 창업 기업에 대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

- **(글로벌 창업활성화 추진내역)**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창업 활성화 정책 추진
 - 글로벌 창업지원센터 설립 및 창업전문 컨설팅 기능제공, 벤처포럼 운영을 통해 글로벌 스타트업의 성공·실패 사례 공유
 - 해외교포, 유학생의 창업지원 및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기반 글로벌 소셜벤처 지원
 - 해외진출 현지 거점 확보, 현지 한인 네트워크 활성화
 - 글로벌 창업기업가 양성 프로그램, 글로벌 창업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예비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가 양성

<표 7> 글로벌 창업기업가 양성 주요 프로그램

구분	주요 교육내용
글로벌 기업가 정신 및 창업 실무교육	글로벌 CEO 리더십, 해외 창업제도, 해외 마케팅 및 해외투자 유치 전략 등
전문가 멘토링	글로벌 창업의 성공·실패경험 전수 및 기술·경영 등의 애로사항 자문
글로벌 기업 방문 프로그램	구글 등 글로벌 기업 방문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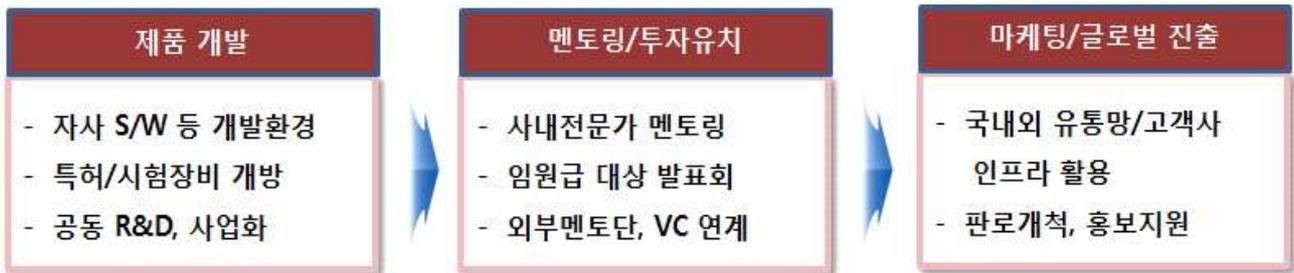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3.7), 글로벌 창업 활성화 계획(Born Global Start-up Korea Project)

-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스타트업에 대한 멘토링·네트워크 지원을 강화하여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엑셀러레이터 발전도모
 - * 성공 벤처인 등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자산을 바탕으로 초기투자자와 단기 보육 프로

- 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공을 가속화시키는 엑셀러레이터 활성화로 스타트업 육성
- 국내 엑셀러레이터는 아직 활성화 초기 단계이고, 대부분이 국내시장 창업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역량제고에 미흡
- 국내에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에 잠재적 역량을 보유한 대기업·성공벤처의 참여 미흡

-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내역) 민간의 성공 대기업 및 벤처기업의 역량을 접목하여 특화된 전문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엑셀러레이터 육성
 - 전 세계에 현지지사(지부)를 운영 중인 해외 우수(Top-tier) 엑셀러레이터와 컨소시엄에 대한 지원 및 국내 유치를 유도하여 국내 엑셀러레이터가 국내 시장 중심에서 탈피, 글로벌 수준의 창업지원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
 - 국내 대기업 및 선도벤처가 보유한 역량·인프라를 활용하여 해당 전문 산업 분야와 연관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도록 지원

<그림 8> 대기업·선도벤처의 주요역할



자료: 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청(2014.3),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계획

□ (민간 스타트업 육성기관) 국내에서는 성공 벤처인 등을 중심으로 20여 개의 민간 엑셀러레이터가 운영 중

- 대부분 2010년 이후 시작되어 아직 활성화 초기 단계이고, 해외에 비해 양적 측면과 전문화·글로벌화 등 질적 측면에서 미흡
- 하지만,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킥캣(모바일 중고장터 앱), 미미박스(맞춤형 화장품 판매 앱) 등 2백여 개의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등 대표적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표 8> 국내 엑셀러레이터 현황

주요 기업	주요 성과	특징
프라이머('10~)	- 연중 수시운영, 24개사 지원 - 킥캣(판매), 에드투페이퍼(광고) 등	- 권도균(이니시스), 이택경(다음) 창업자 출신
벤처스퀘어('12~)	- 3기수 운영, 28개사 지원	-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가 운영
스파크랩('12~)	- 3기수 운영, 13개사 지원 - 노리(교육), 미미박스(배달) 등	- 버나드문(美 비드퀴), 이한주(호스트웨이)등 실리콘밸리+국내 창업가 중심
닷네임코리아 파운더스캠프('12~)	- 2기수 운영, 24개사 지원	- 강희승(닷네임코리아) 창업자 출신
kstartup (앱센터운동본부, '13~)	- 2기수 운영, 20개사 지원 - 센텐스랩, 젤리코스터 등	- 구글(자금/멘토링), SK플래닛(자금), D.Camp(입주공간) 협력
네오위즈 네오플라이('13~)	- 3기수 운영, 22개사 지원 - 마이리얼트립(여행), 이엠컴퍼니 등	- 게임회사 네오위즈와 연계
Fashion Technology Accelerator 서울('13~)	- 1기수 운영, 8개사 지원 - 웨이커미디어, 루이슈즈 등	- 미국FT 합작지사 설립, 패션분야 특화
SK플래닛 101 스타트업코리아('10~)	- 1기수 운영, 6개사 지원 - 오픈, 아우름 플래닛 등	- 사회공헌 차원, 지분투자 없음
삼성SDS sGen 글로벌('11~)	- 2기수 운영, 6개사 지원 - 쉐론, 브이티치 등	- 사내 부서형태 운영, 지분투자 없음

자료: 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청(2014.3),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계획

IV

한국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과제

- (스타트업 육성정책 평가) 정부의 의지와 육성방향은 긍정적이나 세부 운용 방안의 체계화 및 시스템화 필요
 - (긍정적 요인) 스타트업 육성과 발전 방향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 정책 제시와 글로벌화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 기업 육성에 대한 포괄적인 정부의 정책추진
 -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실현 계획을 기반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스타트업의 초기 성장과 발전에 종합적인 정책제시
 - 국내시장의 협소함을 극복하여 창업초기부터 세계시장을 지향하는 'Born Global' 전략 및 이와 연계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전략
 - 스타트업의 발전 및 글로벌화에 대한 적절한 방향 설정 및 육성전략 추진
 - 다수의 민간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 민간 스타트업 육성 엑셀러레이터의 경우 아직 초기 단계이나 다양한 기관들이 활성화되면서 스타트업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 수행
 - (부정적 요인)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시스템화 미흡
 - 스타트업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 및 검증 단계의 미흡
 - 스타트업의 초기 아이디어 발현과 발전에 대한 전문적인 멘토 역량과 성장에 따른 사업전개에 대한 단계적 지원체계 미흡
 - 스타트업 실패에 대한 원인분석 및 환류시스템 부족
 - 스타트업 창업과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실패의 원인과 유형 및 대응방안에 대한 체계화 미흡
 - 창업정보와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의 산재
 - 정부의 지원 시스템과 민간 엑셀러레이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산재

되어 있어 창업기업가들의 정보획득 난항

□ (스타트업 육성정책의 과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창업과 성장을 위한 효율적 시스템 구축

- (미국 사례: 환경적 요인) 아이디어 실현을 통한 창업 확대와 스타트업 기반구축
 - 일반인들이 스타트업 창업을 활발히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창업가가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창업환경 필요
 - 창업이 실패하더라도 재창업 할 수 있는 실패용인 문화 필요
 - * 스타트업의 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동일한 실패는 반복되지 않도록 조정

- (영국 사례: 제도적 요인)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초기 단계의 아이디어 검증 절차 강화
 - 단순한 멘토 연결을 통한 조언 제공이 아닌, 업체 밀착형 자문단 구성 및 맞춤형 지원으로 스타트업 성장에 실질적 도움 제공
 - 획일적인 지원시스템이 아닌 영국의 경우와 같이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집중 육성제도 도입
 - 스타트업 지원에 대한 다양한 정부지원과 민간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

- (이스라엘 사례: 기업 요인) 기업의 내부 경쟁력 확보와 외부참여 확대
 -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역량확보를 위한 스타트업의 내부경쟁력 강화 추진
 - 자사의 경쟁역량 분석 및 유형화, 유사 유형 스타트업 등의 시장 진출현황 파악을 통해 'Born Global' 화에 부합하는 전략 개발
 - 이스라엘과 같이 대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확대 필요



작성자

◆ 글로벌전략지원단 박지원 전문위원



주요국의 스타트업 육성정책과 한국의 과제

발행인 | 김재홍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5년 12월 29일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Global Market Report